

+

카르투시오회 회헌을 인정 준하며 내린 교황 비오 11세의 교황령

### 1. 관상생활의 우수성

세상의 소음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규율에 따라 고독의 삶을 이끌어 가는 이들, 신적 신비와 영원한 진리를 부단하게 관상하며 하느님의 나라가 번창하고 나날이 드넓게 퍼져나가기를 열렬하고 항구하게 기도할 뿐 아니라 규정된 또는 스스로의 자발적 고행을 통하여 몸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자신들의 죄보다도 더 깊이 보속하는 이들, 그러한 이들이야말로 베다니아의 마리아처럼 더 좋은 몫을 택했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러한 삶으로 불러 주신다면 사람이 끌어 안을 수 있는 삶으로서 이것보다 더 완전한 상태와 삶의 방식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봉쇄의 침묵 안에서 고독한 삶을 살아 가며 하느님과의 친밀한 일치를 이루어 가는 이들의 내적 거룩함은 그 성덕의 후광을 끊임없이 빛나게 한다.

### 2. 관상자들의 기도와 보속이 지니는 가치

지난 시대의 영성 저자들이 그들과 같은 수도자들의 기도의 힘과 효율성을 설명하고 찬양하려고 그들의 기도를 성서 속의 잘 알려진 일화를 들어 모세의 기도 에 비기기까지 했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아말렉족과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모세는 근처의 언덕 꼭대기에서 그의 백성이 승리하도록 하느님께 기도와 탄원을 올리고 있었다. 모세의 손이 하늘로 쳐 올려져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했지만 기력이 빠져 팔을 조금이라도 내리면 아말렉족이 이스라엘을 압도했다. 따라서 아론과 후르는 여호수아가 승리를 거둬 전장을 떠날 때까지 양쪽에서 그의 팔을 바쳐 들었다. 아론과 후르에 의해 묘사되는 두 버팀목이 각각 특정한 방향으로 특징지어 지듯이 기도는 한 면으로는 제단에서 바쳐지는 장엄한 희생제사를 통해 생겨나고 다른 한 면으로는 보속의 행위를 통해 생겨나므로 위

의 예화는 우리가 말한 수도자들의 기도의 효과를 매우 적절히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을 하느님께 올려 바치고 그들의 안녕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스스로를 볼모로 잡히고 보상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 놓는 이 독수자들의 의례적이면서 실상은 핵심적인 본분인 것이다. 즉 이것은 늘 그랬듯이 공적인 방법을 통해 이행하는 하나의 직무이자 역할인 것이다.

### 3. 관상생활의 시작과 끝

그리하여 가장 완전한 동시에 그리스도교 전체를 위해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유용하고 풍요로운 이 삶의 형태가 초기 때부터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다방면으로 퍼져 나갔다.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엄격한 생활을 했던 고행자들-하지만 치프리아노 주교는 그들이 그들의 집안에서 만큼은 그리스도의 백성들 중 가장 고결한 이들이라고 여겼다-에 대해 살펴보면 에집트에서 황제 데시우스의 박해를 받던 많은 신자들이 그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사막으로 피신하여 살았는데 그곳에서 살았던 일종의 독수생활이 완전히 이르는데 가장 유익한 방법이었음을 경험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교회에 평화가 찾아 온 후에도 계속 그 형태의 삶을 살았다. 이들 은수자들의 수는 너무 많아서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의 수가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수 만큼이나 되었다고 한다. 더러는 인간사회에서 멀리 떠났는가 하면 더러는 성 안토니오의 지도아래 라우라스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것이 공동체 생활의 기원이 되었고 점차 발전하고 조직화되어, 구체화된 규칙으로 다스려졌으며 동방의 모든 나라, 이탈리아와 골(고대 프랑스)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에 빠르게 퍼져 사방에 수도원이 세워졌다.

4. 수도승 각자가 독수처의 은밀함 속에서 세상의 번잡한 일에 방해 받지 않고 간여하지도 않은 채 그들의 생각을 오직 천상적인 것을 향해 고정시키는 것이 이 삶의 모든 목적이었으므로 그것이 그리스도교 사회에 가져온 영적 선익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 당시의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은 그들 자신의 영적 선익을 위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부추겨져 그리스도 자신께서 나자렛에서 사셨던 드러나지 않은 숨은 생활을 따르려는 이들 그리고 마치 하느님께 바쳐지는 희생제물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들의 육신에 채우려는(골로 1:24) 이들의 모범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 5. 관상생활의 쇠퇴

그러나 관상생활로 일컬어지는 이 훌륭한 삶의 형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퇴하여 그 힘을 잃어 갔다. 이유인즉 그들이 마음의 걱정과 복잡한 세상사를 피해 살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는 했지만 점점 관상생활에 활동생활을 겸비해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들 주교의 간곡한 부탁에 순응하고 신자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일을 다 처리해 내지 못하는 세속사제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더러는 대중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아야 할 때도 있었다. 게다가 당시 만연했던 시대적 혼란으로 인해 수도원들은 해를 입었고 느슨해졌다.

## 6. 회복의 필요성

그러므로 교회로서는 수세기 동안 수도원 내에서 변함없이 이어져온 이 지극히 거룩한 삶의 형태가 그 처음의 왕성했던 생명력을 회복해 기도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게 되어 자신들의 구원에 소홀한 인류를 위해 끊임없이 하느님의 자비를 애원하며 하늘의 은총을 얻어주는 것이 중요했다.

## 7. 이 형태의 삶을 복원한 카르투스시오회의 창립자 성 브루노.

따라서 교회의 안녕과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뛰어난 성덕의 성 브루노를 택하시어 쇠퇴해가는 관상생활을 그 처음의 고결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책임자로 삼으셨다. 브루노성인은 그러한 지향으로 카르투스시오회를 창립하여 자신의 영성을 불어 넣었으며 회원들이 모든 세상사를 떠나 성덕과 엄격한 보속에 빠르게 진보하도록 규칙을 제정하였다. 구백 여년이 지나도록 카르투스시안들이 회칙의 창시자이자 사부인 그들 창립자의 정신을 잘 지켜오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수도회가 다른 수도 단체들과는 달리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한번도 개정이나 개혁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8. 카르투시안, 숨어있는 침묵의 사도

이 사람들에게 대해 찬탄하지 않을 자 누가 있는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들을 숨은 침묵의 사도로 봉헌하려고 일생동안을 사회에서 떠나 엄격하게 사는 그들 각자는 모든 시기에 걸쳐 독수처의 고독 안에서 생활하고 어떠한 이유나 필요에 의해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밤에 그들은 거룩한 성당에 모여 성무일과를 노래한다. 다른 수도회에서는 행하고 있는 음조절 없이 또한 어떠한 악기 없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들 성가집의 그레고리안 멜로디로 성무일과의 전 부분을 생생하고 균일한 목소리로 노래한다. 교회와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을 대신해 하늘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올리는 지극히 거룩한 형제들의 기도를 그토록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어떻게 들어 주시지 않을 수 있겠는가?

9. 성 브루노와 그의 수도회에 대한 사도좌의 높은 평가

라임지방에서 수학하고 있을 때 이 박학하고 거룩한 브루노 성인을 스승으로 모셨던 우리의 선임 교황 우르바노 2세께서 교황직에 오른 후에도 그를 자신의 조언자로 삼고 그의 역량을 활용하며 그에 대해 존경과 너그러움을 아끼지 않았듯이 같은 방식으로 카르투시오회는 여전히 사도좌의 특별한 호의를 누리고 있다. 회원들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언제나 단순함과 소박함을 지녀온 이 수도회는 찬사를 받을만하다. 우리가 카르투시안 수도승들에게 지니는 호의는 예전 못지않으며 이 가치로운 수도회가 퍼져나가 번창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10. 카르투시안들은 특별히 현 시대에 필요한 이들이다.

만약 하느님의 교회에 이러한 종류의 은수자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내세나 특히 그들의 구원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세속적 욕망과 육체의 쾌락을 절제하지 않으며 복음에 반하는 이교도적인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 대내외적으로 드러내고 다니는 오늘날일 것이다.

### 11. 재차 비난 받는 미국적 사고방식

‘수동적 덕행’ 이라고 잘못 이름 부친 덕행들이 더 이상 쓸모 없이 되었으며 좀더 넓고 자유로운 ‘능동적 덕행’ 들이 예전 수도원의 규율을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아직 있을 지도 모른다..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1899년 1월 22일자 그의 서신 *Testem benevolentiae*에서 이 생각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박하고 비난한다. 이러한 생각이 교회 내에서 가르쳐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덕으로 가는데 얼마나 유해하고 위협한지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 12. 주님의 땅을 개간하는 것보다 기도와 보속이 교회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

항구하게 기도와 보속의 의무를 이행하는 이들이 어떻게 주님의 땅을 개간하는 이들보다 교회의 성장과 인류의 안녕에 더 많이 기여하는 지는 그다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개간되고 있는 땅에 비를 뿌려 주시도록 전자의 이들이 하늘로부터 빗줄기 같은 하느님의 은총을 얻어 내지 않는다면 보나마나 농부들은 그들의 노고에 미치지 못하는 빈약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 13. 교황께서 카르투시안 수도승들에게 바라는 바

카르투시안 수도승들이 그들 수도회의 회칙을 철저히 그리고 지극한 열성으로 준수하는 것을 알고 그 회칙이 그것을 준수하는 이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경지의 성덕에 쉽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아는 이상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만한 희망과 기대를 심어 주는 지를 말하는 것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이 수도승들이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을 위해 자비로우신 하느님 앞에 힘있는 전구자가 되지 않을 리 없다.

### 14. 카르투시안 법령에 대한 교회의 찬사

우리의 선임교황 이노첸시오 11세께서는 카르투시오회 회헌을 사도적 보호와 배려로 공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다.

따라서 1688년 3월 27일자 그의 사목헌장 *Injunctum Nobis*을 통해 말 그대로 특별한 방법으로 카르투시안 회헌을 인준하셨다. 그 헌장에서 우리는 카르투시안들에게 전하는 선임교황의 아낌없는 찬사를 볼 수 있다. 그 찬사는 성덕이 뛰어난 저명한 교황님에게서 왔다는 점에서 더 큰 무게가 느껴진다. 그는 그를 앞서간 선임 교황들이 카르투시오회를 들어 ‘주님의 오른손에 의해 교회의 들판에 심어진 싱싱한 나무이며 끊임없이 풍성한 선의 열매를 맺는 나무’ 라고 일컬은 것은 적절했다고 서슴없이 공언했다. 그는 또한 신적이며 고결한 것들을 관상하며 주님을 끊임없이 섬기는 카르투시오회와 그 회원들을 사랑의 그릇 안에 품노라고 말했다.

15. 최근 카르투시안 회헌을 개정한 이유

그러나 앞서 말한 회헌이 이제는 교회법에 부합해야 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카르투시오회의 장상들은 서로 논의해 이 문제를 해결 짓고자 총회에 모였다. 그들은 이 문제를 매우 잘 처리했을 뿐 아니라 카르투시안 삶의 본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회헌의 몇몇 사항 및 관습에 따라 행하여 오던 것들 중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을 폐지하였다. 한편 그들은 총회에서 결정한 몇몇 규정들을 추가하였다.

16. 우리는 라틴어로 작성된 이 개정 회헌을 제출하여 검토하게 하였다.

그 글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소주: 여기다가 카르투시오 규칙의 원문이 전부(全部) 인쇄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서는 우리 규칙을 직접 승인 하신 것이 보입니다.}

( ..... )  
 ..... )

17. 사도좌의 회헌 인정

카르투시오회 총장을 비롯하여 총회에 모인 장상들은 우리에게 사도좌의 권한으로 위에 언급한 회헌을 인준해 줄 것을

겸손되어 청해 왔고 우리는 이에 응해 사목 헌장을 통하여 그들의 요청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언급된 카르투스시오회의 개정 회헌을 사도좌의 권위로 확인하고 인준하며 아울러 이 회헌에 침범할 수 없는 사도좌의 확증을 덧붙이는 바이다. 이 회헌에 있을 수 있는 결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충하여 바로 잡는 바이다.

18. 교황께서 카르투스시안들에게 충실할 것을 권고하시다. 과거 끊임없이 충실하게 그들의 회헌을 지켜온 카르투스시안들에게 앞으로 열성을 다해 이 회헌을 준수하라는 우리의 권고는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한 우리의 아버지다운 마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매년 7월 8일, 사도좌에 의해 그들의 회헌이 인준된 그들에게는 기념할 만한 이날 그들의 성당을 찾아가 통상적인 조건을 이행하는 모든 카르투스시안들에게 전대사를 허락함을 이 사목서한을 통해 밝히는 바이며 이것은 영구히 유효하다.

로마, 성 베트로좌에서, 1924. 7. 8일에, 우리 사도직위의 3째년에.

P. Card. **GASPARRI** Secretary of State

C. Card. **LAURENTI** Prefect of the S. Cong. of Religious\*

Dominic **JORIO**, Protonotary Apostolic

Vincent **BIANCHI-CAGLIESI**, Protonotary Apostolic



+ 아시다시피 1991년에 교황님은 우리 현재 규칙을 승인 하셨습니다. 그 전에 전 규칙은 1924년에 교황 비오 11세한테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 때에 교황님이 아주 공식적으로 카르투스시오 생활의 형태를 칭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을 회칙(Bulla)의 모양으로 공표하셨습니다. 여기 드리는 문서가 이 Bulla 입니다. “Bulla Umbratilem” 이라는 문서입니다. 그를 통하여 교회가 우리 삶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오11세 교황